“운전면허 따야하는데…” 응시인원 제한

코로나 여파 도로교통公·학원, 실내교육 정원 70% 감축
수능 이후 수강생 급증…경찰, 연말연시 지침 강화 연장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새해 운전면허를 따기 위한 수강생들로 북적이고 있지만, 취득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방역당국 등이 연말연시 방역지침 일환으로 실내교육 시 대폭 정원 감축에 나서는 등 인원을 제한한 데 따른 것이다.

10일 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이하 도로교통공단)와 광주 13곳 운전면허학원에 ‘연말연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관리 지침’을 공지했다.

지침은 ▲개인 간 거리두기 3m 이상 ▲실내교육 시 정원 30% 유지 ▲교육 실시 전·후 발열체크 ▲실내 밑 좌석 소독 ▲기능시험·도로주행 대기 시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이다.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는 운전자 안전교육·필기시험·장내기능시험·도로주행 순으로 진행된다. 광주지역에는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 도로교통공단에서만 필기시험이 가능하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달 28일부터 광주학과장 접수 및 시험 시간을 현장 선착순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시간당 12명만 받으며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또 나주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직장인을 위한 ‘토요시험’도 잠정 연기된 상태다.

이로 인해 필기시험을 보기 위한 수강생들로 이른 시간부터 예약이 몰리고 있다.

광주지역 운전면허학원의 경우 필기시험 외 기능시험·도로주행만 응시가 가능하며 대기 시 5인 이상 집합금지 지침이 적용되고 있다.

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실내교육 시 정원 감축 비율을 조정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연말연시 방역관리 지침 전에는 정원 감축을 50%에서 최근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30%선으로 낮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능 이후 수험생들이 밀려드는 시기인 ‘성수기’인데다, 새해를 맞아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수강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예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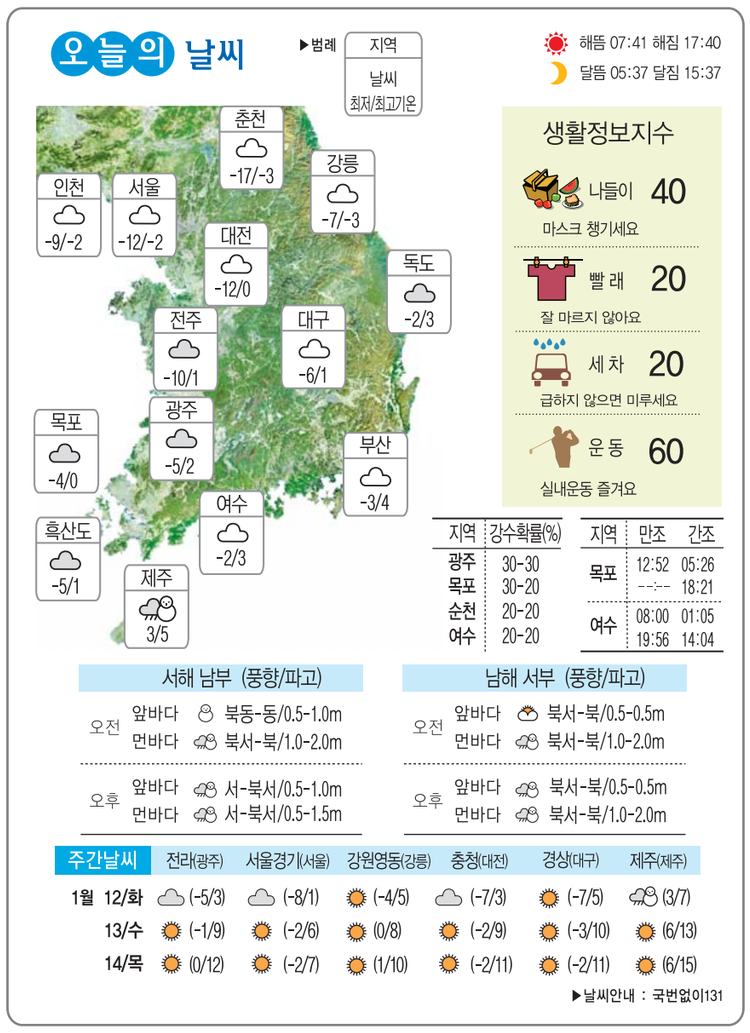
지난달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의 응시와 코로나 확산세가 맞물리면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가 예년에 비해 훨씬 어려워졌다는 게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운전면허시험 준비 중인 A(20)씨는 “광주에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만 필기시험이 가능하고, 그마저도 아침 일찍 가지 않으면 예약이 금방 차버린다”며 “코로나로 인원까지 제한하고 있어 면허 취득하기가 쉽지 않은데,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이 하루 빨리 들어섰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광주 운전면허 필기시험이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어 예년에 비해 예약이 몰리는 건 사실”이라며 “현재 코로나로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제한되고 있다. 광주에 시험장이 들어서면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공단과 운전면허학원 등에 일제히 방역지침을 공지했다. 필기시험의 경우 인원 제한을 하면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지만, 그 외 시험은 광주지역 학원만 13개가 있어 크게 어려움이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연말연시 방역지침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폭설현장 대민지원 ‘구슬땀’ 기록적인 한파로 지난 6일 밤부터 내린 눈이 들녘에는 녹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민지원에 나선 특전사 황금박쥐 부대 장병들이 담양군 월산면의 한 비닐하우스단지 주변에서 제설작업을 돕고 있다. /김영근 기자



道,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첫 지원

月 최대 20만원…건강한 사회구성원 성장 기대

전남도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참여수당을 올해 처음으로 지급한다.

전남도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준비와 함께 진로탐색을 위해 사용토록 지급하는 수당이다.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 추진한 전국 최초 사례로 상생협력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대상은 전남도내 거주하는 만 9-18세(2003년 1월1일-2012년 12월31일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이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후 센터로부터 제공받은 프로그램에 월 6회 이상 참여하면 매달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의 경우 초등(만 9-12세) 학령기는 월 5만원을 교통카드에, 중(만 13-15세)·고등(만 16-18세) 학령기는 각각 월 10만원과 20만원을 체크카드에 적립해준다.

지원금은 교통비와 간식비, 교육비, 진로 계발을 위한 문화활동비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김재정 기자

동강대 정시모집…학과별 입학장학금

간호·임상병리·응급구조과 제외 학생부 100%

동강대학교는 오는 18일까지 2021학년도 정시모집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동강대는 올 신입생 중 만학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포함)를 제외하고 학과별로 입학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동강대는 이번 정시모집에서 스마트시티학부, ICT융합학부, 간호학부 등 7개 학부 21개 학과 신입생을 선발한다.

일반전형의 경우 간호학과, 임상병리과, 응급구조과, 군사학과를 제외하고 학생부를 100% 반영한다. 학생부(400점)는 2학년 교과성적(320점)과 1-3년 출결성적(80점)으로 평가한다.

간호학과와 응급구조과, 임상병리과는 학생부 20%+수능성적 80%로 학생을 뽑고 수능성적은 국어와 영어 50%씩 반영한다.

학생부의 경우 2학년 교과성적(64점)과 1-3년 출결성적(16점)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군사학과는 학생부 80%와 면접 20%로 평가하고 2학년 교과성적(256점)과 1-3년 출결성적(64점)으로 학생부 성적을 산출한다. /최권범 기자

도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20개월 연속 1위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새해 들어 처음 발표된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도 전국 1위 자리를 유지했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장 교육감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주민직선 3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2020년 12월 직무수행 평가에서 51.5%의 지지를 얻어 지난 2019년 5월 이후 20개월 연속 1위를 달렸다.

장 교육감의 지지율은 4개월 연속 상승하며 전국 교육감 중 유일하게 5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효과적인 방역과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지켜내고, 전남교육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에 나서는 모습이 도민들의 공감을 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이번 조사는 11월23-30일, 12월23-29일 전국 18세 이상 각 8천500명(시·도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광역단체 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4.9%이다. /최권범 기자

옛 전남도청 2차 탄흔 조사로 접근 통제

‘5·18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에 남아있는 탄흔을 찾기 위해 2차 방사선 검사가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1일부터 18일까지 도청 본관 등에 대한 방사선(감마선) 조사를 하고 이 기간 일반인 접근을 전면 통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청 본관과 회의실을 비롯해 옛 전남도경찰국과 경찰국 민원실 등이 조사 대상이다.

방사능 노출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단은 조사구역 70m 주변에 일반인 접근을 통제하고 가림막을 설치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이 기간 휴관하며 문화전당역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아시아문화광장으로 진입하는 출입구, 전당 A·B 주차장, 지상에서 전당으로 진입하는 출입구를 모두 통제한다. 추진단 관계자는 “1차 조사 때보다 강한 방사선으로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다이 기자